

참목자

요 10:1-6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실을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이 격렬하게 공격하고 도전한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러 함이라”(요 9:39).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곧 자신들이 소경이란 말이나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요 9:41).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처럼 너희도 소경이었다면, 마음이 가난해 구원받았을 것이며 눈을 뜨게 되어 메시아도 만났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구원의 가능성마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독점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인간에게 최대 위기는 오만함입니다. 원가를 해내고 이뤘기 때문에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기 최면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종교적인 우월감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든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종교적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종교적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은 인간적 오만함에 종교적 우월감까지 더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 -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적 리더십을 보셨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지도자란 누구인가, 리더와 리더십이란 게 무엇인가?’하는 질문의 해답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교회나 사회 혹은 국가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곧 붕괴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성경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의 주제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 23:1~6).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은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찌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찌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시 100:1~5).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양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도 “그는 목자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막 6:34)고 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백성들은 불행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진다’는 말은 리더가 사라지면 그 시대에 어둠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영광의 하나님이”(히 13:20)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도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 5:3~4)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란 한 마리 어린 양이라도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회하는 사람을 가리켜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로 말한다면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 개념은 샅군 목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의 특성은 샅군 목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인위적이고 권력 추구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부, 명예, 권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사장이 되려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세상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인도하여 꼴과 물을 먹이고 편히 쉬게 하며 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샅군 목자는 양들에게서 젖, 가죽, 고기 등을 얻으려고 아무렇게 대합니다. 사람은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먹이를 주고 전염병 예방 주사를 놓는 것이지, 돼지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잘못된 리더십에 현혹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뿐인 데도 말입니다.

양들 안전하게 인도하는 참 목자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전형은 '참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선한 목자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6절까지에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7절부터 10절까지에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배불리 먹게 하는 모습입니다. 셋째는 11절에서 21절까지에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는 모습입니다. 먼저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선한 목자를 살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우리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목자는 구원하십니다. 영웅적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고 희망과 꿈을 갖게 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참된 목자는 외부 세력을 막아주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극복하며 끝까지 양들을 보호합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평안한 휴식처로 인도하고 끝까지 보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목자는 우리의 정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는 도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를 침입하는 자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전체에서 도적 같은 리더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들고 들어오는 자가 도적 같은 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호색하며, 탐심을 좋아하고 육체를 따라 살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털을 쓴 이리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흥분시키며 선동한다고 했습니다. 유다서에는 '몰래 들어온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에는 '몰지각한 목자들'을 지적하셨고, 예레미야서 23장 54절에 '양 무리를 흩어버리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양떼를 잡아먹는 목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삿군 목자이며 종교적 가면을 쓴 타락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두 번째로 참된 목자는 양 우리의 문지기도 알아보는 것입니다. 양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우리에게 도착하면,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는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냅니다.

인격중심의 관계

세 번째로 참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리더십이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란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양들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양들을 잘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일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능력 있게 일을 잘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일이 끝나고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 집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친구도 많아집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일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 교회에서도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일을 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내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악한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죽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목자는 많은 양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양이라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물질 중심이 아니라 인격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양들은 더 이상 목회의 성공이나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에 따라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양떼들이 잘 양육 받고 꼴을 잘 먹으며 평안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현대 교회는 '좌석수(sitting capacity)'가 얼마나 많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송지(sending capacity)'가 얼마나 많은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와 양들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잘 이뤄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진정한 리더십이 살아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즉 진정한 목자는 양들도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4, 5,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 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네 번째로 진정한 목자는 양들이 목자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과주의, 결과중심주의로 일을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빠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방향을 잡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느냐가 대두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쾌락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영적 안목과 마음의 여유 그리고 목자와 양의 진실한 관계가 자신에게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4, 5절 말씀으로 자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명령과 복종의 관계인가, 존경과 신뢰의 관계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관계 중심에서 상대방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권력이 필요합니다. 돈이나 권력 등이 있어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힘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인간관계가 의무와 채무의 관계인가, 사랑과 헌신의 관계인가는 목자와 양들의 관계로 자명해집니다.

참된 지도자는 양들을 우리의 문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이고 쉬게 하며 보호해 줍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양들은 사납고 거칠 수 있지만,

그런 양들을 순하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목사, 장로,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리더십이 성도님들의 가정, 교회, 사회에서 적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리더십에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리더십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